

미국, 장기요양보험 리스크관리 실패와 시사점

김동겸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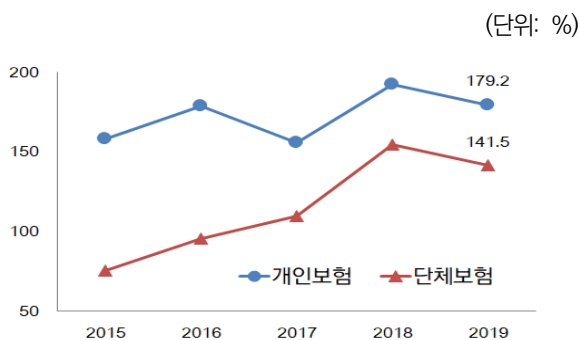
요약

미국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장기요양보험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 가격산정 오류로 제도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이에 업계와 감독당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임. 미국 LTC 보험 시장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내 보험회사들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가격산정 오류와 느슨한 언더라이팅 발생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수익성 악화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의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LTC)은 '90년대 후반 급성장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었으나, 1) 수익성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사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19년 신계약 건수는 '15년 실적의 36.7%까지 감소함²⁾
 - '17년 이후부터는 단체 LTC 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가운데, '19년 기준 전체 보유계약의 2/3 이상이 '03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어서 향후 손실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³⁾
- LTC 사업부문 수익성 악화 등의 여파로 CNA사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장부가보다 낮은 상태임

〈그림 1〉 미국 장기요양보험 손해율 추이



자료: A. M. Best(2021)

〈표 1〉 주요 보험회사의 장부가 및 시가총액('19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장부가	시가총액
Metlife	66,144	46,650
Prudential	63,115	37,390
Brighthouse	16,172	4,195
Genworth	14,632	2,218
CNA	12,215	12,160
Unum	9,965	5,918

자료: Society Of Actuaries(2021)

○ 미국 LTC 보험의 수익성 악화는 보험가격산정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1) Mohey-Deen and Rosen(2018), "The Risks of Pricing New Insurance Products: The Case of Long-Term Care," Th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 Nordman(2016), "The Stat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Market, Challenges and Future Innovations", NAIC
 3) A. M. Best(2021), "LTC Product Performance Pressure Continue"

- 보험회사가 과거 LTC 상품 출시 과정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적용하였던 기본 가정과 실제 경험통계 간 차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⁴⁾
 - LTC 상품의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사망률(mortality rate), 회복률(health recovery rate), 해약률(lapse rate) 등은 과대 추정하여 적용한 반면, 사고발생률과 의료 이용량 등은 과소 추정하여 적용함⁵⁾
- LTC 보험부채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이에 상응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나, 듀레이션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더 낮은 이자율로 재투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음

〈표 2〉 장기요양보험 가격산정을 위한 주요 가정과 설정오류

구분	해약률	사망률	사고발생률과 회복률	의료 이용량	금리
주요 내용	보험계약 탈퇴 (보험료 지급 중단)	장기요양급여 수령 전/중 사망	장기요양 판정 확률, 급여수령자의 건강회복	일일 의료이용 한도 초과분	보험료 수입(축적)과 투자수익
현재 상황	(과거)예상치보다 낮은 해약률 발생	(과거)예상치보다 낮은 사망률 발생	(과거)예상치보다 높은 발생률, 낮은 건강회복률	(과거)예상치보다 높은 의료 이용량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지속

자료: Mohey-Deen(2018), "The Risks of Pricing New Insurance Products: The Case of Long-Term Care"

- LTC 보험의 수익성 악화가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 보험회사는 LTC 상품의 ① 보험료 및 급여 조정, ② 판매 중단, ③ 준비금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함
 - 보험회사는 계리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과거에 판매한 상품(Legacy Products)⁶⁾에 대한 요율인상을 단행하거나 급여 조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완화하는 방식을 채택함
 - 보험료 인상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요율인상의 합리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음⁷⁾
 - LTC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자 MetLife('10년), Unum('12년), Prudential('12년), Manulife('16년), CNA('16년), John Hancock('17년) 등은 LTC 상품 판매를 중단함⁸⁾
 - '단독형 장기요양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민영보험회사는 '00년 125개사에서 '19년 12개사로 급감함
 -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준비금 부족액이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는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함⁹⁾
 - 다만 '20년에는 코로나19로 사망률 증가, 장기요양 발생원인 감소로 일시적인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남¹⁰⁾
- 한편, 감독당국은 LTC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뢰 저하,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산업 전반으로의 위험 확산 차단을 위해 LTC 상품의 요율인상 및 부채평가 기준 마련,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청산을 진행함¹¹⁾

4) LTC 상품 출시과정에서 일반인구 또는 장기요양 필요 상태에 놓이지 않는 대상자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산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애수준이 높더라도 고연령까지 생존해 있는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Mohey-Deen and Rosen(2018); Eaton(2016),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OA Pricing Project," Society of Actuaries

5) Moench and Shawnr(2019), "Medi(long-term)care for All: A Look Into the Future of Long-Term Care Insurance—Part One"

6) Pollock et al.(2021), "Anatomy of a long-term care rate increase", Milliman

7) Tully et al.(2020), "Recent Developments in LTC Rate Increase Litigation", Society of Actuaries

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Long-Term Care Insuranc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Regulation"; A. M. BEST(2018), "LTC Rate Increase Drive Premium Loss Ratio Remains Volatile"

9) Bill Nylon(2021), "How to Effectively Manage a Closed Block of Long-Term Care Insurance", Society of Actuaries

10) Fitch Ratings(2021), "Long-Term Care Insurance Dashboard(Improved Results: View of Reserve Adequacy Unchanged)"

11) Mark Gold(2021), "LTC Reserve Weakness and What an Industry Reserve Incentive Program Might Look Like"

- NAIC는 '19년 LTC Insurance T/F를 설립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요율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LTC 보험의 경우 갱신과정에서 주(州)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 형태인데, 감독당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또한, 준비금 부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Actuarial Guideline 51(AG51)'을 제정함
 - 한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부채평가 시 현행 시장수익률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인 LDTI(Long Dated Targeted Improvements)를 도입함
- 한편, PTNA¹²⁾, ANIC¹³⁾, SHIP¹⁴⁾, TIC사의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감독당국은 보증기금제도를 통해 회생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운영 실패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LTC 보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용을 위해 상품혁신과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및 유인책 마련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임¹⁵⁾

- 기존 LTC 상품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이브리드 상품(Combination Products), 단기 LTC 보험(Limited LTCI), 전환 LTC(Morphing Policies) 등이 등장함
 - 이 중 하이브리드 상품은 LTC 보험을 선지급 특약(Accelerated Benefit Rider)이 포함된 연금 또는 생명보험과 결합한 상품으로, 최근 5년 동안('15~'19년) 판매량이 75% 증가함
 - 전통적인 LTC 상품은 계약자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망 시점까지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구조로, 장기요양 상태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기요양 상태에 진입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특약을 가진 생명보험과 결합함
- 장기요양 필요 상태에 놓인 보험가입자에게는 '요양관리사(Case Manager)'를 배정하여 적절한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금 지급 방지 및 연기를 위해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LTC 보험 가격 산정 시 보험금 지급 예측이 중요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의약품 소비 실태, 의료 이용, 배우자 사망 여부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정보 파악을 위해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추진 중임
- LTC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의료저축계좌(HSA)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한도를 증액하였으며, LTC Savings Account제도 마련을 검토 중임

○ 미국 LTC 보험 시장에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내 보험회사들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한 가격산정 오류와 느슨한 언더라이팅 발생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LTC 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보험료 인상이나 회사의 청산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가격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12) 펜실베이니아주 보험감독당국은 Penn Treaty사의 회생을 위한 요율인상(300%)이 보험계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청산을 요청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17년 3월 청산을 승인함; Pennsylvania Insurance Department(2017. 3. 1), "Insurance Commissioner Announces Court Approval Of Liquidation Of Penn Treaty And American Network Insurance Companies"

13) PTNA사와 ANIC사의 회생 및 청산과정에서 연방법원은 저가의 보험료 책정, 느슨한 언더라이팅 문제를 지적함; Supreme Court of Pennsylvania(2015. 7. 20), "IN RE: PENN TREATY NETWORK AMERICA INSURANCE COMPANY in Rehabilitation"

14) SHIP사는 이환율 예측 오류, 투자수익 과대추정 등으로 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20년 회생절차에 진입함

15) Pension Research Council(2021), "Solving the Long-Term Care Financing Puzzle in the Wake of COVID-19"